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D-2

역경을 딛고... 사랑을 담아... 내일을 향한 질주

이색 참가 선수·단체

15번째 풀코스 완주 도전

42.195km 완주는 일반인도 감히 업두를 낼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번에 풀코스 완주에 도전장을 내민 1급 시각장애인 이운 동씨... 1급 시각장애인 이운 동씨... 이씨는 왼쪽 눈에 아예 보이지 않고 오른쪽 시력은 0.04에 불과하다...



1급 시각장애자 이운동씨가 지난해 열린 제41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서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역주하고 있다. 이씨는 이번 제42회 대회에도 출전, 풀 코스에 도전한다.

18세 18명의 '추억 만들기'

고려고 2년 남학생들 '낭랑 18세' 광주 고려고등학교(교장 윤대용) 2학년 남학생 18명이 교도시절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낭랑 18세'란 독특한 이름으로 3·1절 전국마라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달리기로 살 뺀 '몸짱 가족'

처가식구 모임 '팽귤 할매와 열매들' '팽귤 할매와 열매들' '3·1절 전국마라톤'에 출전하는 류상선(44)씨와 처가 식구 9명으로 구성된 마라톤 팀 이름이다... '팽귤 할매와 열매들'은 지난 2004년 서울국제 동아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59분 24초로 '서브-3'를 달성한 마라톤 마니아이다...



"95세까지는 열심히 땀짓"

신체 건강한 성인일지라도 우습게 보고 덤벼들었다 93세 최고령 이 증 현 응... 간 남매를 보기 쉬운 마라톤 5km 구간. 더군다나 백수(白壽)를 바라보는 노인이 된다면 그건 엄청난 난코스다... 그러나 이번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최고령으로 참가한 올해 93세의 이증현응에겐 그리 어려운 거리가 아니다...



93세 최고령 이 증 현 응... 이 응은 이번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참가를 위해 동네 주변을 가볍게 달리며 컨디션을 조절 중이다.

- 전남도청 마라톤동호회

"우리도 뚱다"

- 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3·1절 마라톤 계기 전국으로 홍보

"3·1절 마라톤의 열기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로 이어가겠습니다." 제42회 3·1절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전남도청 마라톤 동호회(회장 양근석 수산유류담당) 회원들의 다부진 결의다... 전남도청 마라톤 동호회의 이번 대회 참가 회원은 모두 22명. 회원들은 매년 20여회 전국 규모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있지만 3·1절 대회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전남도청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이 3·1절 마라톤 대회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겠다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도청 마라톤 동호회원 가운데 베테랑은 단연 홍경섭(55) 전남도의회 교육사회 전문위원이다...

"유사석유제품 근절 홍보"

김중호 지사장 등 16명 출전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 김중호(앞줄 왼쪽부터 네번째) 지사장과 직원들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땀을 흘립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 김중호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 16명이 제42회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야심찬 출사표를 던졌다...

김중호 지사장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보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하다"며 "이번 대회를 광주·전남민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의 기회로 삼겠다"고 참가동기를 밝혔다. 대회에 참가하는 직원들의 의지도 남다르다. 퇴근 후 매일 집 주변을 1시간 이상씩 뚱다는 신입사원 곽대승(28)씨는 "우선 내 자신이 건강해야만 업무 의욕도 높아진다"며 "인내심과의 싸움인 마라톤의 정신을 배워 유사석유제품을 근절시키는 근성을 키우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